

1 염갈랑 리더십...뜨거운 눈물로 마침표

〈염경엽 감독〉

5가지 키워드로 본 넥센 결산

- 2 4번 박병호·5번 강정호 시즌 92홈런 합작
- 3 뎀 헤켄·소사 두 용병투수 값진 'KS 투혼'
- 4 조상우·한현희 큰 경기 부담감 값진 경험
- 5 끝내 풀지 못한 4번째 선발투수...숙제로

넥센 히어로즈가 두 번째 가을 잔치를 끝냈다. 한국시리즈에서 정규시즌 우승팀 삼성에 2승4패로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다. 비록 첫 우승에 대한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라는 무대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제 넥센은 패기와 힘뿐만 아니라 '경험'까지 장착한 팀이 됐다. 넥센의 첫 한국시리즈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리더십

넥센 염경엽 감독은 프로야구 사령탑으로 데뷔한 지난해,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 아쉽게 패해 분부를 삼켰다. 정규시즌을 2위로 끝낸 올해는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했다.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경기를 운영했고, 선수들에게 "꼭 우승을 해야 한다"는 절실함도 심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경기 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준우승이 확정된 후 패장 인터뷰 도중 참을 수 없는 눈물도 쏟았다. 초보답지 않은 지략과 배짱을 가진 염 감독에게 우승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투혼

넥센의 두 용병투수는 팀을 위해 3일 휴식 후 등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헨리 소사는 P O 1차전과 4차전에 등판해 4차전 승리투수가 됐고, 뎀 헤켄은 한국시리즈 1차전과 4차



넥센은 한국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얻은 게 많았다. 두 번째 가을야구이자 창단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으면서 패기와 힘, 그리고 경험까지 장착한 강팀으로 거듭났다.

전에 나서 역시 4차전 승리투수가 됐다. 둘 다 4차전 데일리 MVP. 용병투수들에게 쉽사리 보기 힘든 투혼을 발휘했다. 심지어 뎀 헤켄은 한국시리즈 7차전 선발로도 내정돼 있었다. 두 번 연속 4일 간격으로 등판해야 했지만 "준비가 됐다"고 했다. 그가 다시 마운드에 오를 기회는 안타깝게도 다시 오지 않았다.

●92홈런

넥센 4번타자 박병호와 5번타자 강정호는 정규시즌에 무려 92개의 홈런을 합작했다. 둘을 앞세운 강력한 타선은 한국시리즈를 앞둔 넥센의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러나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병호와 강정호의 방망이가 한국시리즈 6경기에서 나란히 침묵

했다. 박병호는 2차전의 솔로홈런을 포함해 3안타, 강정호는 1차전의 결승 2점홈런을 친 게 활약의 전부였다. 해결사 없이 경기를 치러야 했던 넥센은 역설적으로 박병호와 강정호의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 확인했다.

●부담

한현희와 조상우가 없는 넥센의 마운드는 상상할 수가 없다. 한현희와 조상우, 그리고 손승락까지 확실한 필승 불펜 세 명의 존재는 넥센 마운드 운용의 큰 줄기였다. 그러나 둘은 아직 20대 초반이다. 한현희는 프로 3년차, 조상우는 2년차다. 계속된 포스트시즌 등판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한현희는 한국시리즈 시작과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잘 버티던 조상우 역시 경기의 중압감이 더 높

아지자 끝내 무너졌다. 넥센으로서는 앞으로 오랫동안 넥센 마운드를 책임질 두 투수가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는 것만으로도 소득이다.

●네 번째 선발투수

넥센은 PO에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도 3선발 체제로 삼성에 맞섰다. 뎀 헤켄과 소사에 오재영까지, 세 명의 선발이 돌아가면서 한 경기씩 책임졌다.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큰 경기를 믿고 맡길 만한 토종 선발투수가 보이지 않아서다. 다행히 세 명의 선발투수가 모두 최선의 활약을 펼쳤지만, 넥센으로서는 네 번째 자리를 메워줄 수준급 국내 선발투수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새까맣게 타들어간 이정훈 감독

프로구단 차출처부·심판 편파판정 등 속앓이
21세이하 세계야구선수권 예선통과에도 격정



대만 타이중에서 열리는 21세 이하 세계야구선수권에서 한국대표팀은 A조 2위로 예선라운드를 통과했다. 이제 본선라운드에서 13일 니카라과, 14일 일본, 15일 호주를 만난다. 그 결과에 따라 16일 예정된 결승 진출 여부가 가려진다.

대표팀은 A조 예선에서 홈팀 대만에 1-7로 졌을 뿐 체코(15-5) 이탈리아(12-6) 멕시코(10-0) 뉴질랜드(4-1)를 격파했다. 결과만 보자면 무난하게 달려온 듯하지만 12일 만난 대표팀 이정훈(사진) 감독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태극마크의 의무감으로 고난과 맞선다!

이 감독은 "경기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1경기도 쉽게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1일 뉴질랜드전만 해도 8회까지 0-1로 밀렸다. 이 감독도 마음 한편으로 체념할 뻔했다. 그런데 9회초 상대팀이 뜻밖에도 투수를 바꿨고, 이 틈을 파고들어 4점을 내 겨우 이겼다. 큰 점수차로 이긴 나머지 3경기도 중반까지 예측불허 흐름이었다.

이 감독이 가장 신경을 쓴 9일 대만전은 에이스 임기준이 6.2이닝 동안 133구를 던져 팔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정말 널 투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와일드카드로 23세 이하 선수를 5명 보강했음에도 기존 프로구단들의 소극적 태도로 차출부터 고전했다. 아마추어 선수 배려 차원에서 엔트리 24명 가운데 대학선수가 10명 할당됐는데 아무래도 프로 2군 선수들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프로 2군 출신 대표선수들도 퓨처스리그가 끝나고 한참 후 소집이라 몸이 안 만들어졌다.

외적으론 심판들의 편파판정도 이 감독을 힘들게 한다. 이 감독은 "경기마다 1번씩은 나와서 항의하는 것 같다. (한국을 떨어뜨려) 대만과 일본의 결승전을 원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전에 사활 건다!

약전고투 속에 2위로 본선에 올랐으나 대만은 A조 1위, 일본은 B조 1위로 올라와 있어 한국이 불리하다. 사실상 1패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한국은 일본을 무조건 잡아야 결승을 바라볼 수 있다.

대표팀 차동철 투수코치는 "니카라과전은 문경찬, 일본전은 임기준을 준비시켜 놔다"고 말했다. 임기준의 어깨에 대표팀의 순위가 가려질 상황이다. 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어쨌든 이겨나가고 있기에 선수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 감독은 "아무리 최악체라 해도 대표팀이다. 어떻게든 결승에 올라보겠다"고 눈빛을 빛냈다. 현역 시절 '악바리'로 통했던 그 눈빛이었다.

타이중(대만) | 김영준 기자 gatby@donga.com

트위터 @matsr21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

‘CCTV 사건’ 연루 이문한 롯데 운영팀장 사표

“새 대표·단장 취임 전 그만둬야겠다 생각”

‘롯데 CCTV 사건’에 연루됐던 이문한(53) 롯데디자인즈 운영팀장이 12일 사직서를 내고 구단을 떠났다. 롯데는 사표를 수리했다.

롯데 선수 출신인 이 전 팀장은 야구 후배들인 롯데 선수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가장 큰 사건은 CCTV 불법사찰의 주동자로 몰려 격한 진통과 거센 후폭풍이 뒤따랐다. 그러나 CCTV 불법사찰이 앞서 롯데를 떠난 최

하진 전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후 선수들과 오해를 풀고 주변을 정리해왔다.

이 전 팀장은 12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이미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롯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수들과 오해는 풀었나?’라는 질문에 “그 점은 참 다행이다. 운영팀장과 선수로 만났지만 야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 몇몇 선수들과 직접 만났고 오해했던 부분을 모두 풀었

다. 그렇지 못했으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을 텐데 이제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이 (대표이사, 단장)취임식이다. 그 전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저도 실무자로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선수들과 오해를 풀어 마음이 훨씬 편하다. 당분간 쉼 쉬고 싶다. 일을 그만 둘 때는 아니라서 쉬고 난 뒤 또 새로운 일을 알아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팀장은 1984년 롯데에 투수로 입단했고 삼성에서 운영팀장과 국제 스카우트부장을 맡았고 지바롯데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NC 이태일 대표, 김경문 감독이 12일(한국시간) 플로리다 베로비치의 히스토리다저타운에서 열린 '제53회 LA 다저스 성인야구 캠프'에 참가해 토미 라소다 고문, 박찬호(왼쪽부터)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LA 다저스 홍보팀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성에 과학을 세우다!

확대 · 조루 · 발기력강화
국내유일 '성기능강화용링' 특허

크게 단단
오래 자주
수술없이!
착용당일!
사용간편!
반영구적!

개폐장치

자석(약700가우스)
길이 25mm 두께 2mm의
자석을 특허기술로 진공 내장

본체(순은)

천연자수정
본드 부착반식이 아닌
보석물림방식으로 반영구적

※ 약 5~7mm 정도 사이즈 조절가능

대표이사 서영숙

특허 제10-0756243호

뉴맨과 함께 하세요!

작고 빨라서 자신
없는 젊은 남성!
▶▶▶ 30%이상 커지
면서 시간연장

강직도가 약해 중간
에 시들어 고민인 남성!
▶▶▶ 단단한 강직도가
끝나도 쉬 시들지 않음

주소창에
newm.kr만
입력하세요.

NAVER 뉴맨

www.newm.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 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이 모든 기능에도 착용 후 15일내 환불가능 시스템! T.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6-6번지
(주)케이앤제이스포츠